

기재부 재정관리관, 제10차 「공공기관 투자집행 점검회의」 및 간담회 개최

- 공공기관 1사분기 집행현황 점검 및 상반기 집행전망 논의
- 특히, 투자계획 비중이 큰 도로·철도 등 대규모 사업들의 신속집행 강조
- 투자집행 과정에서 현장 안전관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할 것을 당부

안상열 재정관리관은 4.14.(월) 15시 한국수자원공사(대전 신탄진로)에서 열린 '25년 제10차 「공공기관 투자집행 점검회의*」를 통해 1사분기 집행현황을 점검하고, 기관별 집행여건 및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간담회**를 가졌다.

* 기재부 재정관리관(주재), 주요 공공기관 26개 부기관장 참석

** (현장참석) 7개 기관(토지주택공사, 철도공단, 철도공사, 도로공사, 에스알, 수자원공사, 농어촌공사)
(영상참석) 19개 주요 공공기관(한전, 한수원, 캠프, 가스공사, 부산항만공사, 인천공항공사 등)

이번 제10차 점검회의에서는 1사분기 집행현황을 점검하고, 이후의 집행여건과 전망 등을 논의하였다. 26개 주요 공공기관의 금년 투자집행 목표액은 작년보다 2.5조원이 늘어난 66조원이다. 이 가운데 37.6조원(57.0%)을 상반기에 집행하여 경제활력 제고와 대국민 공공서비스 증진에 기여한다는 계획이다.

1사분기까지의 집행실적은 19.5조원(29.5%)으로 '24년 동 기간 집행액 19.0조원 대비 0.5조원이 늘었다. 특히, 계획규모가 큰 5개 기관(한국토지주택공사, 한국전력공사, 국가철도공단, 한국도로공사, 한국수력원자력)이 모두 1조원 이상을 집행하여 1사분기 실적을 견인하였다.

구 분 (단위 : 조원)	'24년			'25년			증감 (b-a)
	목표		1분기 집행실적(a)	목표		1분기 집행실적(b)	
	연간	상반기		연간	상반기		
합 계	63.5	34.9	19.0	66.0	37.6	19.5	+0.5

안 재정관리관은 점검회의를 통해 “최근 내수회복이 지연되고 통상환경이 급변하는 등 대내외 여건이 녹록치 않은 상황에서 우리 경제 회복을 위해 공공기관의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집행이 어느 때보다 중요”하다고 강조하며, “2사분기에도 투자집행이 차질없이 이루어지도록 만전을 기하여 상반기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줄 것”을 당부하였다.

이후 진행된 간담회(한국철도공단, 한국철도공사, 한국도로공사 등 7개 기관 참석)에서는 현장안전을 특히 강조했으며, “신속집행과 함께, 공공기관들이 질 높은 공공서비스를 적기에 공급할 수 있도록 정부도 국비의 적기 배정 등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”고 덧붙였다.

담당 부서	공공정책국 재무경영과	책임자	과 장 이민호 (044-215-5630)
		담당자	사무관 이숙경 (lskyung@korea.kr)

